

# 大學과 人間教育

張 眞 鎬

(慶熙大 教育學科)

오늘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의 기능도 변천되어 왔다. 인간교육을 소홀히 하기 쉬운 현대 대학에서 인간회복의 기능은 개인과 사회의 공동체적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하며, 이의 실천을 평생교육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I

사회변동에 따라 대학도 그 모습을 달리해 왔다. 본래 순수 학문을 목적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學問共同體를 형성하여 고독과 자유를 모두로 삼아 온 대학이 이제는 實用的 學問과 職業的 技能의 습득을 근간으로 하는 多機能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해 오게 되었다.

대학의 人口면에서도 본래는 소수의 무리가 생활을 같이하면서 진리와 학문의 토론 및 개인적 지도와 인격적인 접촉을 통하여 대학에서 인간을 배워 왔는데, 오늘날의 대학에서는 만원이 된 캠퍼스와 교실 공간 속에서 일방적 강의나 매체를 통한 간접적 접촉과정과 양적 팽창 속에서 思考의 대중화 경향을 낳게 되었다. 學習過程에 있어서 중요한 사색의 과정이나 진리를 찾아가는 고독의 단절 경험이나 인격적인 대화나 문답이 생략된 채 오늘날의 대학은 산업사회의 큰 조

류에 밀려 기능을 숙련시키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을 익히는 데 급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교육과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래의 대학에서는 모든 전문적·직업적인 교과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교양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게 되어 있었다. 고전과 교양, 자연과 사회,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 등의 인간 공통의 學問을 통해서 人生觀과 世界觀의 기초를 닦게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에서도 기초 교양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하여도 학생 인구의 과다, 전공과목의 급증, 학습량의 증가, 교양담당 교수의 자질문제 등으로 교양교육이 충실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論理學的 사고 과정은 전혀 존중되고 있지 않다.

오늘과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대학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그 기능을 근본적으로 동요시키게도 된다. 變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適應과 不適應의 문제

는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경직된 사회에 있어서는 역기능이 많이 노출되기 일쑤이다. 대학의 기능을 환경, 교수, 학생, 매체 등과 같은 캠퍼스 內的 조건으로만 규정해 온 전통적인 생각이 이제는 용납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경직된 사회규범 속에서 他律的 순응에 안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오래 계속되지 못한다. 그만큼 사회변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하게 진전되어 가기 때문이다. 學生들의 사고 영역이나 행동 반경 그리고 정보의 입수 경로나 그 처리 형식에 있어서도 既成的 패턴을 넘어서거나 무시하려는 충동이 강하게 일고 있다. 그리고 독서의 영역도 엉뚱하게 비약하게 됨으로써 學問의 체계와 이성의 경로를 무시한 채 곧 바로 행동에 연결되는 경향이 짙어져 간다. 이리하여 비합리적 논리의 正當性을 주장하게 되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되면 既成世代가 불신을 당하고 세대의 역할이 침범되면서 세대간의 해체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變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훈련의 기회를 주지 않은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大學은 인격을 닦고 기능을 연마하는 개인적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사회 변동을 자율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豫備社會化의 훈련 기능도 아울러 지니고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大學이나 교수나 또는 학생에게 社會變動에 대처할 수 있는 自律權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다. 학문의 기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능력, 가치 선택능력 등이 경원시되어 오면서 변동에 대처하는 능동적 변별력을 키워 오지 못한 것이다.

## II

인간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調和를 이루는 이치에서 찾을 수 있다. 페스탈로찌는 머리·손·심장의 조화에서 인간교육의 이상을 찾았다. 사고의 힘과 기능의 힘과 도덕의 힘이 조화되었을 때 사람은 균형 있는 인격을 지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균형 교육이 잘 이

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적 기능을 발달시키고, 기술의 힘을 속달시켜 주는 듯하면서도 도덕의 힘은 교육 외적 영역으로 소외되어 가고 있다. 사실 道德的 人間의 형성 과정은 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기능적으로 유능한 인간이 도덕적으로 균형을 이룬 인간을 앞질러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는 세상이 되었다. 특히 산업사회에서는 실용적 지식과 능률적 기능이 으뜸되는 가치로 되어 있다. 이것이 직업성과 연결이 될 때에는 더욱 편협한 실리주의에 빠져 들어 가기가 쉽다. 이렇게 되면 단편적 지식과 부분 기능만을 강조하게 되어 인격의 統覺作用을 잃게 되기 쉬운 것이다.

한 나라의 고등교육을 받은 知性人들이 자기의 인격적 통제력을 잃게 되면 이는 단순한 문제일 수가 없다. 확실히 우리는 지금 인간교육의 위기 징후를 많이 보게 된다. 성장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古 今의 교육사를 살펴보면 옛 사람들은 가정에서 이미 인간교육의 기초를 다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엄격한 교훈과 어머니의 자비로운 사랑의 조화 속에서 성장되어 오다가 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도덕적 기대 속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어 가게 되고 학교의 규격 바른 문화 속에서 인격 훈련을 쌓아 갈 수 있었다. 그것이 너무 형식적이지요 경직된 감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교육의 한 脈은 형성해 가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모든 사회상이 변하고 말았다. 사회구조적으로 예전의 상황이 조성되기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현대인의 의식구조 속에서도 소홀히 되어 가고 있다. 가정교육을 통해 참된 인간의 모습을 형성하지 못한 무교양의 世代들이 대중화된 학교에 들어와 경쟁사회에서의 처세 학습에 젖어 들게 되면, 인간의 普遍的 德性보다도 利益社會的인 개별적 실리로 인간성을 몰아 가게 된다. 더우기 사회·정치·경제가 정도를 벗어나고 순리적이 아닌 경로로 발전되어 가면, 도덕적 기준이 확립되지 못한 젊은 세대는 그 속에서 이기적 합리성을 찾으려고 처세각각을 굳혀 가거나 아니면 갈등과 항거에로 빠져들기 쉬운 것이다.

종자를 심어 주지 않은 데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교육이 없이 조화된 인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사람 개개인의 됾됨이에서 민족의 내실을 다져 갈 수 있고 균형 있는 인간교육으로부터 부강한 나라의 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교육의 과제는 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의 平生敎育의 관점에서 생각할 문제인 동시에 가정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 사회교육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교육의 통합작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인간교육의 문제는 교육기관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 아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Ⅲ

인간교육의 내용을 인격의 統攬작용이란 면에서 생각할 때에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그것은 주체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이다. 한 인격 속에 이 세 속성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인간교육의 실효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교육의 기본기능은 自我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학은 개인의 자아의식을 형성해 가고 자주적 결단력을 길러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를 제공해 준다. 그리하여 이 시기를 경과해 가는 가운데 주체성을 지닌 한 인격체로 성장되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주체적으로 확립이 안 되면 나와 너와의 사회적 관계도, 우리라는 공동체적 관계도 원만히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다. 자기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형성해 가려는 노력 없이 대학에서 전공과목과 직업훈련에만 몰두해 간다고 하면, 그 대학이 인력 공급에는 공헌할 수 있어도 사회에 이상을 불어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인력의 양성과 그 공급처는 대학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효율적 방법으로 설치해 갈 수 있다. 대학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물을 인격의 통합성 속에서 변별하고 가치화시켜 공동체의 복지를 높여 줄 수 있는 인간의 주체성 교육에 궁극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소홀히 되어 왔다. 우리의 교육풍토는 전체를 강조

하는 사회·정치적인 경향 속에서 개체를 전체에 매몰시키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他律的인 의미가 항상 대학 분위기를 앞서 간 면이 많았다. 이런 풍토 속에서 관성화되다시피 했기에 대학교육은 자율적 신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유스러운 학문 풍토 속에서 연구와 발표의 자율성이 보장됨으로써 학문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자유로운 사고와 비판의 과정 속에서 학구적 분위기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의 사고 구조나 표현 능력, 단편적 지식이나 정보처리능에 있어서 논리적 연결성의 부족은 매우 특징적이다. 또한 개체로서의 시간이나 삶의 처리 능력도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대중 속에 휩쓸려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에는 익숙해 있으나 개체로서 사색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심층적 경험에는 익숙해 있지 않다. 이런 결과에서는 역사를 보는 눈도 단편적이기 쉽고, 연결성이 단절된 채로 현실만이 부각된 가운데서 행동하기 쉬운 것이다.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개체 인격 속에 생각하고, 비교하고, 선별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적으로 자기 좌표를 설정하는 데 통각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실용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고전의 이상주의도 조화를 이루어 지성에 흡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용적 방법론도 쌓아 가야겠지만 직관적 지혜를 그 바탕에 지녀 가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양교육은 교과과정의 편성 작업이나 전공과목과의 연계성이나 또는 시간 배정 등의 실질적 문제 이전에 인격교육을 위한 근본 철학의 문제와 역사의식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교육의 둘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격간의 관계적 측면이다. 나와 너와의 사회적 관계는 안으로는 이미 나의 의식작용 속에서 형성되어 있고, 밖으로는 사회 규범 속에서 행동화된 것이다. 거기에는 중요한 인격의 교호작용과 더불어 교양과 질서와 약속이 수반되어 있다. 오늘의 교육은 점점 知行이 별개의 것으로 유리되어 간다. 배우는 일과 실행하는 일과의 사이

에는 二元化 과정을 겪어 가고 있다. 더우기 해방 후 잘못 소개되어 온 실용주의 교육관이 이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알고 있는 지식에 참이 빠지면 그 아는 하나의 단편적 정보에 불과하다. 정보처리는 실용적 가치에 따라 計量的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이런 등식이 오늘의 산업사회 구조 속에서는 인간관계에서도 통용하게 된 것이다. 정보가 수단화된 것처럼 인격도 수단화되어 버리면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게 된다. 상품화된 인간은 부분적 존재로서 또는 상황적 존재로서만 가치가 있지 통합체로서의 인격적 존재로서나 그 자체의 존엄성이 중요시되지 않는다. 인력의 市場性이 혼란을 가져올 때는 가장 악성의 경제 공황을 일으키게 된다.

오늘의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올바른 사회적 관계성의 경험을 잘 유도해 주지 못하고 있다. 경쟁사회 속에서 현명하게 적응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지위를 상승시키는 등의 실리적 사회 적응수단만을 고취한 것으로 배우게 되는 경향이 많다. 거기에 인간관계의 윤리적 차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물량적 상대주의에서 인격적 상대주의로 나아가도록 경험시켜 가야 한다. 거기에는 상대의 인격을 존엄하게 여기는 정신적 태도와 경험을 서로 분담해 가는 협조 정신의 함양이 필요하게 된다. 대학에 있어서의 對話의 과정과 교양의 훈련은 강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면서도 오늘의 상황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 것이 또한 사실이다. 오늘의 대학 캠퍼스에서는 예전과 같은 학문적 대화나 시적 공감성이나 교양 있는 예절 교환이 사라져 가는 경향이 있다. 진리의 대화가 없는 대학은 삭막하고, 사색이 없는 캠퍼스는 공허하다. 그리고 교양 없는 지성에게서 더욱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인간관계의 회복은 대학에 있어서의 인간교육의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인간교육에 있어서 세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적인 측면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주어진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큰 만큼 그 책임도 비례해서 크다. 그런데 현대사회 상황 속에서 이들의 사명 인식이 흐려져 가는 것 같다. 소수 엘리트주의의 과거 대학에서는 이러한 의

식이 고조되어 왔지만 오늘과 같은 고등교육의 대중화 경향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의식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사회구조 속에서는 사회를 지속시키는 면에서나 문화를 보존·발전시키는 면에서나 더우기 우리와 같이 생존권을 지켜가기 위해서도 공동체에 대한 '우리 意識'의 교육은 필요한 인간교육의 내용이다.

오늘을 즐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단적 응력을 길러야 하는 동시에 집단 과정을 통한 민주주의의 사회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누구나 우리 의식이 생겨날 때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사회나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고 이기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에 있어서의 학생 자치활동이나 자치기구 운영에 있어서의 창의성은 존중되면서 적절히 지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운명공동체 의식은 지성이 지녀야 할 실천적 가치이다. 지성들이 공동체에 대한 공헌을 사명으로 느껴 갈 때 사회적 존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강조하거나 이데올로기화할 때에는 도리어 소외의식을 느껴 역작용을 낳게도 된다.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애국심이 힘을 발휘하고 밖에서 강요된 애국심은 무력해지는 것처럼 人格의 수단이 갈 수 있는 진실한 공동체적 가치 교육은 지성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양교육의 일환으로서 가족집단에 관한 강좌설정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집단은 인간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이고 자연적이며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의식화시키고 습관화시키는 데 있어 효과적인 기본 사회이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전진해지지 못하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진다. 여기에서 가족문제는 현대 인간교육의 중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강좌명으로는 「삶과 가족」, 「가족주기와 나」, 「가족의 설계」 등 실제적이고 흥미 있는 내용들이 선정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교양교육의 일환으로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社會學 분야이다. 외국에서는 사회학이 학부 초기에 이미 공통과목으로 이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학에 대한 기초 지식 위에 전

문명역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현대를 공동으로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을 전공으로 하든 인문과학을 전공으로 하든간에 누구나 현대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학적 지식을 터득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관계를 조명해 보고 인간의 집단생활 속에 적용되는 사회적 원리를 이해하는 일은 삶을 풀이 나가는 데 있어 대단히 유익하다. 또는 현대 사회의 다양성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문제의 가능성,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접근과 처리에 있어서 공동체적 능력을 함양해 가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공동체적 접근을 위한 인간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대학에 있어서의 共同教授(team teaching)의 개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은 隣接科學 또는 연관 과학간에 또는 主題의 상관영역간에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인접과학이나 연관 교과간의 공동교수 학습을 많이 논의해 왔는데, 사회문제나 어떤 특정 주제에 따라서 여러 전공영역간에 복수로 이루어지는 공동 학습에는 보다 생생하고 흥미 있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준비와 행정적인 문제와 세밀한 계획과 협조 없이는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여러 여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IV

오늘의 교육사조는 平生敎育이라는 흐름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포오르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평생교육을 현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人間敎育의 한 형태로서 또는 과학적 휴머니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틀 속에서 오늘날의 대학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현대 교육의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大學의 위치를 평생교육의 통합적 구조 속에서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늘과 같이 급격히 변동되는 사회 속에서 대학교육의 효용성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 지식이나 기능이나 정보의 지속성이나 효용성의 제약뿐만 아니라 교육기회 문제에 있어서도 대

학이 교육의 종착 단계라든가 또는 대학이 교육의 최고 기관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용납치 않게 되었다.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의 연령과 교육 시기 및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고정관념이 점점 약화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교육의 정책을 바꾸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인간교육의 개념이 지금까지는 아동교육이나 청소년 교육의 범주 속에서만 운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의 추세에 있어서는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인간화하는 인간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평생교육의 이상이 學業社會의 건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사회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는 평생을 통하여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규적 또는 비정규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화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에 대학의 평생교육적 기능은 몇 가지로 요약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대학교육은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한 인간교육의 일환으로서 평생교육의 기능을 가진다.

둘째, 대학은 정상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형식적 교육기관인 동시에 순환교육기관으로서의 평생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은 인간의 생활주기에 있어서 주로 성인의 사회적·직업적·문화적인 생활의 준비를 위한 기본 원리와 자율성, 자주성과 응용성의 함양이 강조되어야 한다.

대학의 평생교육적 요청은 위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평생을 통한 인간교육의 이념으로부터 발생된 것이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상을 인간의 전 주기를 통하여 진단하려고 하는 현대적 필요성에서 동기화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의 교양과정으로서 평생교육 관계의 강좌 설정은 절실히 요망되는 영역이다. 또한 대학에 있어서의 평생교육 공개강좌로서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은 연구되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평생교육의 강좌 주제로는 「평생교육과 생활주기」, 「현대 사회와 평생교육」, 「평생의 삶과 배움」, 「사회생활과 학습의 기술」, 「여가와 생활」, 「직업의 세계」, 「결혼과 삶」 등을 들 수 있다. \*